벤처창업연구 제13권 제1호 (통권55호)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3 No.1. pp.43-60

대학생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효능감, 기회인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이정란 (킥스타트인베스트먼트 이사)*
장규순 (동서울대학교 부교수)**

국 문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 관계자들과 창업관련 정책 관계자들에게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현 위치를 알리고,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의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창업교육 지원, 창업활동 지원, 사업화 지원의 세 가지 지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원들 중 어떠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창업의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였다. 또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활동 지원은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화 지원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교육 지원은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활동 지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활동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사업화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은 부분매개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다른 변수들은 매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일부 지원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으로 인해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을 높일 수 있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과 충분한 창업활동 지원과 학생이 원하는 사업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발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효능감, 기회인식, 창업의지

Ⅰ. 서론

최근 고용 없는 성장과 고령화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청년 실업과 조기은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창업관련 다양한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와 진취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으로서 창업보육센터나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교육지원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창업의지는 창업 행동을 수반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ouitaris, et al., 2007). 따라서 대학은 대학생 창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효과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역할이 되는 창업가 육성을 위해서는 조금 더 폭넓고 장기적 관점에서 창업의지 및 기회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업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전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창업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창업자 개인의 배경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고, 대학의 창업교육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자아효능감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효과적인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 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와 기회인식까지 다룬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즉 대학생의 기회인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각각의 형태들 중 어떠한 지원프로그램 형태가 대학생의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대학 관계자들과 창업관련 정책 관계자

* 주저자, 킥스타트인베스트먼트 COO, topljr@naver.com
** 교신저자, 동서울대학교 부교수, gschang2182@hanmail.net
· 투고일: 2018-01-16 · 수정일: 2018-02-26 · 게재확정일: 2018-02-28

들에게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현 위치를 알리고,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예비창업자들이 창업관련 지원을 받은 후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대한 행동 변화 시점에서 추가 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최종적으로는 창업의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전략적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창업지원프로그램

2.1.1. 창업교육 지원

창업교육이란 사업 아이디어의 탐색, 구체적인 사업 계획수립 및 성공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창업 관련 지식 및 태도 등을 교육함으로써 잠재적 창업가들의 창업의지를 함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재석·이상명, 2015).

창업가는 창업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육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onstadt, 1985; Garavan & O'Cinneide, 1994; Gibb, 2002). 또한, 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더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창업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Timmons, 1994).

창업교육은 다양한 실패를 학습함으로써 실제 시장에서의 실패를 줄여주고(McGrath, 1999), 불확실성으로 인한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창업교육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지식으로 대체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교육이 필요하다(Kirzner, 1973).

창업교육은 모험심과 활성화가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 하지만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창업교육이 더 많은 또는 더 좋은 기업가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일관된 증거는 미흡한 상황이다(이재석·이상명, 2015).

창업교육과 창업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창업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으로 대체시키도록 교육함으로써 창업의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으며, 창업교육을 함으로써 실업을 탈피하고 창업에 대한 욕구를 유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창업교육은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Garavan & O'Cinneide, 1994; Kierulff, 2005; Michaelides & Benus, 2012). 그러나 이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주장한 연구들도 있어서 창업교육과 창업관련 인적 자본 및 창업과의 관계는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지만 창업교육과 창업과의 관계는 훈련중심의 창업교육보다는 일반적인 학교교육 중심의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강한 효과가 있다(Martin, et al., 2013). 또한 창업교육은 많은 창업관련 인적 자본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Mentoor & Friedrich, 2007), 창업교육과 창업에 대한 기술 및 태도, 또는 창업의지는 작지만 부정적인 관계가 있거나 실제로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들도 있다(Garalis & Strazdiene, 2007).

이처럼 현재 많은 연구들에서 창업교육의 결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고, 정성적인 연구들에서도 모호한 결과들을 보이며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이재석·이상명,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자기 효능감과 기회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이를 통해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1.2. 창업활동 지원

대학생들의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대학 및 정부는 창업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재정적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학 강좌, 동아리, 창업교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대학생 창업동아리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업종이나 아이템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본인의 전공지식이 창업동아리 활동이나 사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전공지식을 실제로 창업현장에서 적용해 봄으로써 대학에서의 이론교육 못지 않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유형의 척도와 무형의 척도를 사용할 수 있다. 유형의 척도는 융통성 있고 우호적인 신용 조건이나 벤처 캐피탈 유용성, 생산기반시설, 기업의 유형 자산, 연구실, 교육의 기회, 경진대회 등을 포함한다.

무형의 척도는 인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창업을 위해 충분한 합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창업 지원 내용을 포함 한다. 만일 누군가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여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인지한다면 창업의지는 낮아질 것이고, 더불어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창업효능감도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개인이 느끼기에 제도적 여건이 우호적이라고 인지한다면 자신감은 높아 질 것이고, 그로 인한 자기효능감도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유형, 무형의 균형적인 창업활동 지원은 창업가들이 자신감을 갖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본 연구에서는 창업활동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자기 효능감과 기회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이를 통해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1.3. 사업화 지원

일반적인 기술사업화의 의미는 기술을 이용하여 상용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노두환 외, 2016).

즉 연구개발 또는 외부조달을 통해 획득한 새로운 기술을 생산 활동 등에 투입하여 제품제작, 출하, 판매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연구개발 계획 수립, 아이디어 창안, 기술을 이용한 공정 개량 및 신제품 생산, 제품수명주기 연장에 이어지는 모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기술사업화는 아이디어의 획득, 보완지식의

증대, 판매가능한 상품의 개발, 제조, 제품판매의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Mitchell & Singh, 1996), 기술에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Jolly, 1997).

기술혁신과 혁신경영 분야에서도 기술사업화에 대한 해석과 개념정의가 있어 왔다. 선형모형(Linear model)의 관점에서는 기술사업화를 기술혁신 프로세스의 한 단계로 해석할 경우, 과학 및 기술 지식의 창출활동(기초·응용·개발연구)이 완료 되고나서 기술사업화 단계(시제품제·시험생산·양산체제 구축·마케팅·판매활동)가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김규태, 2016). 사업화 지원이 창업의지나 기회인식, 자기 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 규명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고 주로 창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창업 제도가 창업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창업교육 이외에도 창업활동지원 및 사업화지원 등이 대학생들의 실제 창업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승권, 2016).

본 연구는 Kraaijenbrink, et al.(2010)이 대학생들의 대학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중 사업화 지원이 자기 효능감, 기회인식, 창업의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2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이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으로부터 확장된 개념으로써, 최근 창업 관련 연구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주요 개념이다. 창업자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할과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창업 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강재학·양동우, 2016).

창업효능감을 창업의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의도로부터 창업행동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행변수들 가운데 하나로 보았고(김해룡, 2008), Hisrich et al.(2013)는 창업효능감이란 '스스로가 기업가적 과정(Entrepreneurial Process)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뜻한다' 라고 하였다(강재학·양동우, 2016).

창업효능감이 높은 예비창업자는 경쟁적인 창업환경도 기회로 인식하며, 위험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창업 현실지만, 그것에 유능하게 대처하여 성공적으로 창업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실패 가능성은 낮게 지각한다. 또한 높은 창업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기회로 인식하는 반면, 창업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오히려 환경을 위험이 상존하는 불안한 상황으로 평가함으로써 기회를 놓치게 된다.

불확실성, 위험, 어려움이 존재하는 동일한 창업 현실 속에 있더라도 높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낮은 사람보다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창업의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McGee, et al., 2009).

2.3 기회인식

창업가에게 있어서 기회를 인식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창업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이 아이디어를 오히려 무심코 발견하는 것이며,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열심히 찾는 사람의 대부분은 실패로 끝난다고 보고 있다(Vesper, 1990). Vesper(1990)는 아이디어와 만나게 되는 모양을 7가지의 유형으로 설명했는데, 첫째 기대치 않았던 초대로부터, 둘째 전직으로부터, 셋째 권리의 획득으로 부터, 넷째 자기고용으로부터, 다섯째 취미로부터, 여섯째 사회적으로 만난 사람들로부터, 일곱째 단순한 행인의 관찰로부터 등등 이다(김현목, 2013).

기회인식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창업가는 기회를 포착하고 잘 인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창업가는 남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트랜드를 읽는 넓은 시야와 업계의 흐름과 전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김현목, 2013).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창업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자, 창업자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 역량 중 하나로 볼 수 있다(홍효석, 2011; 문수영·황보윤, 2011)

기회인식란 포괄적인 의미로 자원 또는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문수영·황보윤, 2011). 즉,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거나 미사용 자원 또는 역량을 활용한 사업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며 기회인식은 실제기회와 인지기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회를 인지하고 있으나 기회를 활용할 능력이나 창업동기가 없을 경우 창업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난다(윤현덕, 2003).

또한, 창업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업자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주는 것보다 기회인식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장수경, 2013). 그렇기 때문에 기회인식은 창업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4 창업의지

일반적으로 창업은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Gartner, et al., 1992). 창업은 과정적 측면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창업의지를 기업의 설립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본다. 즉,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박은주, 2012).

창업의지는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고용에 반대되는 것으로써 자영업(Self-employed)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을 다루는 마음의 상태이며(Bird, 1988), 사업을 소유할 가능성에 관한 판단으로 창업가가 되려는 개인의 일반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시작하려는 욕구

라고 정의할 수 있다(Crant, 1996; Krueger, et al., 2000; Bae, et al., 2014).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그 행동을 설명해주는 변수로 창업의지를 측정한다.

Bird(1988)에 의해 체계적으로 시작된 창업의지 연구는 Shapero(1975), Shapero & Sokol(1982)등이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모델을 정립하였고, Krueger(1993)와 Davidsson(1995)이기존의 의지모델 및 창업의지모델을 정리하고 확장하여 또 다른 창업의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utio, et al.(1997)는 기존 연구모델들을 대학이라는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였다(이재석·이상명, 2015).

의지모델이 제시한 의지를 창업으로 연결하여 창업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는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of Planned Behavior: TPB)과 Shapero의 창업 이벤트 모델(Shapero's model of the Entrepreneurial Event: SEE)이 그 실증의 주요 근거가 된다(Krurger, et al., 2000). 특정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한 모형인 TPB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기준이 더 호의적일수록, 그리고 인지된 행동 통제가 더 클수록 하려고 하는 행동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Ajzen, 1991).

인간의 행동은 계획된 것으로 인지적 과정이며, 이러한 행동을 유도하는 의지는 계획된 행동의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로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인지된 행동 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행동의지는 의사결정자의 관심을 행동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Ajzen, 1991; Krueger, et al., 2000). 이와 달리 SEE는 관성(Inertia)을 대신할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그 관성이 인간의 행동을 유도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한 것으로 창업의지란 창업에 대한 개인적인 매력의 정도인 인지된 매력(Perceived Desirability), 창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능성의 정도인 인지된 타당성(Perceived Feasibility), 그리고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천성향인 행동성향(Propensity to act)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보았다(Shapero & Sokol, 1982).

실직, 이민 등 주요 이벤트가 사람들에게 선택이라는 의사결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은 또 다른 대안으로 창업을 인식하게 되며, 이러한 인식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결국 창업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Krueger, et al., 2000). 이 두 모형은 창업의지에 대한 상대적인 해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Krueger, 1993; Krueger, et al., 2000), 인간의 의지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현재까지 창업의지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에서 이 의지모형을 활용하고 있다(이재석·이상명, 2015).

Ⅲ. 연구모형 및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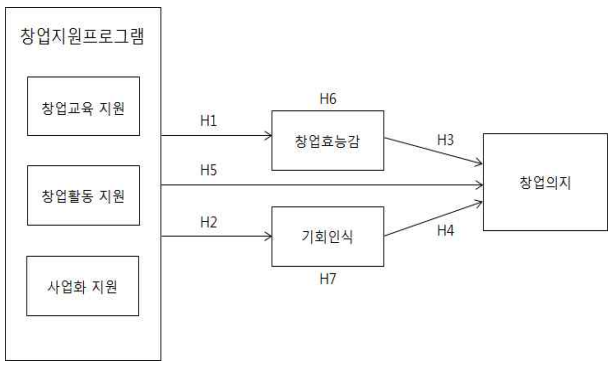
3.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의 영향과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창업가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창업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지원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입증하고, 어떠한 요인이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창업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이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지각된 대학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창업교육 지원, 창업활동 지원, 사업화 지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변수로 활용하되 일부 문화적 차이에 의해 필요한 내용은 응용하여 추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창업의지를 개시하는 요인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을 변수로 선정한다. 창업의지는 창업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검증된 이론적인 변인이다.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인식 및 실행을 목적으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효과를 측정하는 변수이다(박은주,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대학생 창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을 매개 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창업의지로의 연결성을 알아보고자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각 변수들의 영향관계를 도식화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가설 순서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업지원프로그램(창업교육 지원, 창업활동 지원, 사업화 지원)이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한다. 두 번째 부분은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한다.

세 번째 부분은 현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창업교육 지원, 창업활동 지원, 사업화 지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한다. 끝으로 네 번째 부분은 창업지원프로그램(창업교육 지원, 창업활동 지원, 사업화 지원)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다.

3.2 가설 설정

3.2.1.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효능감 및 기회인식

창업교육은 기본적으로 창업역량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Zhao, et al., 2005). 또한 창업교육은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있어 관련 태도와 의지를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준다(Chen, et al., 1998).

또한 창업교육 이외에도 창업활동지원 및 사업화지원 등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실제 창업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창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대학생들은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Krueger & Brazeal, 1994).

창업활동 지원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창업효능감과 창업 기회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을 촉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창업지원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정확히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측정 하려면,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창업교육 지원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창업활동 지원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사업화 지원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창업지원프로그램은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창업교육 지원은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창업활동 지원은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사업화 지원은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

대학은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시 창업의지에서 실제 창업으로의 연결을 위한 고려를 반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대학 창업지원프로그램은 학기 중에 대부분 국한되어 개발되며, 대학 졸업 후 까지 고려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대학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Galloway & Brown, 2002).

심리적으로 창업에 대한 지각이나 위험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남다른 사람들이 창업의도가 높을 것이라 한다면 창업 강좌 수강이나 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창업의도를 높여갈 수도 있는 것이다(Peterman & Kennedy, 2003; Soutaris, et al., 2007). 대학에서 시행하는 각종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학생들일수록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창업교육을 보다 많이 수강한 대학생들일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outaris, 2007).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경우 부모님이나 주변의 지인들의 창업관련 사례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창업에 대한 의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장수덕·이재훈, 2014). 즉 대학생들은 창업과 관련된 롤 모델을 경험하게 될 때 창업의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Sequeira et al., 2007;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결국 대학생들의 경우 창업관련 다양한 경험들에 노출될수록 창업의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Krueger, 199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H3: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기회인식과 창업의지

창업이라는 것은 기회포착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회인식 및 발굴을 통해 창조되는 것이기도 하다(Shane, 2003). 따라서 기회의 인식은 슘페터적인 혁신의 관점으로 객관적인 기회를 창조적인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장수덕·이재훈, 2014). 반면 기회의 창조는 키즈너적인 관점으로 사람들 간의 아이디어와 상호작용, 혹은 교환을 통해 창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장수덕·이재훈, 2014).

이러한 기회인식은 각종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회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능력은 창업에서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얻어진 기회인식은 창업의지로 연결 되는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첫날과 교육 마지막 날 두 번의 기회 식별 능력을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기회 식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입증하였다(최민정,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H4: 기회인식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대학은 창업교육이나 특강, 동아리 활동, 사업화 지원 등의 각종 창업지원프로그램들을 통해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제고시키고 창업 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대학의 분위기나 각종 제도, 또는 교수들의 창업에 대한 생각 등도 대학생들의 창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수덕·이재훈, 2014).

예컨대 Roberts(1991)는 대학 교수들의 창업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 Thursby & Kemp(2002)는 연구와 산학협력에 대한 보상시스템, 그리고 DiGregorio & Shane(2003)는 기술이전과 각종 제도가 학생들의 개인적 창업활동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장수덕·이재훈, 2014).

대학생들의 경우 창업에 대한 의지가 아무리 높아도 학업을 병행하면서 창업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대학이 전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대학생들의 창업관련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대학생들의 창업활성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대학생들의 경우 창업에 대해 받아들이는 태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으며, 사업의 지속성 보다는 당장의 이익에 대한 생각이 앞선다. 또한 각종 지원에 대한 활용을 하는데 있어 각종 불리함과 불편함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학이 창업의지가 매우 강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고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다면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창업활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창업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H5: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의 매개효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창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 위험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며,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이 있으므로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Kreuger & Brazeal, 1994). 또한 청년층의 창업교육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이것이 청년층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며(최명길·박은주, 2012) 창업효능감은 창업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데, 자기 효능감은 과업 의존적인 자신감을 의미하므로 창업의도를 규명하는데 유용성이 높다(성창수, 2011).

강한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을수록 행동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며, 결과적으로 강한 행동의지를 갖게 된다.

따라서 창업의지는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H6: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6-1: 창업교육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6-2: 창업활동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6-3: 사업화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7: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7-1: 창업교육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7-2: 창업활동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7-3: 사업화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법

3.3.1. 창업지원프로그램

대학의 창업 교육이나 지원의 효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그들의 대학에서 받는 창업교육과 지원에 대해 얼마만큼의 효과를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가 측정 되어야 한다(Kraaijenbrink,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Kraaijenbrink, et al.(2010)이 대학생들의 대학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 창업교육지원, 창업활동 지원, 사업화 지원을 대학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문장으로 수정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안승권, 2016).

대학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16개로 모두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구성 변수별 문항은 Kraaijenbrink, et al.,(2010)가 연구한 문항을 활용하되 일부 문화적 차이에 의해 필요한 내용은 응용하여 추가 및 수정 하였다.

3.3.2.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이란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고 다양한 도전과 위험에 능숙하게 대처하여 창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자기 신념이다(Zhao, et al., 2005). 창업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창업가망성은 창업에 대해 느끼는 관심과 매력, 창업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창업타당성은 스스로 창업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 창업을 시작할 때 스스로 가늠하게 되는 자신의 능력, 가능성으로 정의한다(장혜선, 2014).

창업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4개로 모두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구성 변수별 문항은 이론적 배경을 참조하여 필요한 내용은 응용하여 추가 및 수정 하였다.

3.3.3. 기회인식

기회인식란 타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파악하여 기회로 활용해야 할 창업가의 필수 역량이다(Kirzner, 1973). 하

지만 많은 연구에서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었지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창업역량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다(최민정, 2016). 창업가의 필수역량인 기회인식을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창업역량과 경영기술을 일정 기준에 의해 분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창업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관련 된 활동이나 행동을 중심으로 비슷한 역량끼리 분류하고, 분류 작업을 통해 기회인식 및 개발, 관계 형성, 개념화, 조직화, 전략 구성, 개인적인 헌신 등 총 여섯 개의 창업역량(Man et. al., 2002)을 제시하였다. 여섯 개의 창업역량 중 기회역량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시장의 기회들을 인식하고 개발하는 역량을 의미한다(최민정, 2016).

본 연구는 Morris, et al.(2013)이 제시한 기회인식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문항은 일부를 상황에 맞게 적절한 문장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기회인식은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3.4. 창업의지

의지는 하나의 심리학적인 프로세스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의지란 특정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에 관심을 쏟는 마음의 상태인데(Bird, 1988),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바라던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기와 의향의 정도를 포착할 수 있다(Ajzen, 1991). 따라서 의지는 계획된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최고의 예측 도구로 인정되어 왔다(Bagozzi, et al., 1989).

특히 드물거나 관찰하기 어려운 행동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적 지체를 수반하는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Bird, 1988; Krueger & Brazeal, 1994). 이러한 관점에서 의지는 창업 활동을 예측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의지는 Timmons(1994), Crant(1996), 박우철(2010)의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난 후 창업에 대한 의지변화에 대한 설문항목을 근거(곽동신, 2016)로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4 연구조사 및 절차

본 연구는 창업지원프로그램 그리고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 및 문헌을 바탕으로 변수를 설정한다.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을 독립변수로, 창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요인인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계한다.

가설은 조사목적과 연구범위를 고려하여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경험 한 적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하여 조사하며, 다음의 <표 1>는 설문이 진행 된 대학과 해당학교에서 설문을 받은 학생의 수를 나타낸다.

<표 1> 설문 지역 및 대학 그리고 대학별 학생 수

대학명	학생 수(명)	비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71	46.1
숙명여자대학교	8	5.2
인천대학교	20	13
국민대학교	8	5.2
인하대학교	26	16.9
기타	19	12.3

3.5 분석방법 및 절차

설문은 2016년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20일간 해당 대학별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지원 부서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배포 후 응답 받은 후 익명 제출 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약 12개의 대학에서 총 154개의 학생에 대해 154부의 설문을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그 중 불성실하게 답변되었다고 판단되는 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52부의 설문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2>은 설문의 구성을 나타낸다.

<표 2> 설문 구성

변수		설문문항		척도
상위영역	하위영역	개수	파트	
일반사항	성별, 연령, 학년, 대학, 전공, 전공 선택의 만족도, 창업과 전공의 연관성, 창업상황,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9	I	명목척도 등간척도
참여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교육 지원	3	II	명목척도
	창업활동 지원	4		
	사업화 지원	5		
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대학 지원	창업교육지원	5	III	등간척도
	창업활동 지원	7		
	사업화 지원	4		
창업효능감		4	V	등간척도
기회인식		5		
창업의지		4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 클리닝 과정을 통해 정리하였으며, 통계처리를 위해 SPSS 21.0을 활용하였다. 본 설문분석의 과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대학별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지원 부서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154개의 응답을 회수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답변되었다고 판단되는 2개의 표본을 제외하고, 총 152개 응답을 최종 표본으로 하였다.

최종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본의 성별은 남자 99명(65.1%), 여자 53명(34.9%)으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20~24세 108명(71.1%), 25~30세 32명(21.1%), 30~35세 5명(3.3%), 35세 이상 7명(4.6%)으로 20~24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년은 1학년 35명(23%), 2학년 32명(21.1%), 3학년 23명(15.1%), 4학년 62명(40.8%)으로 4학년의 비중이 가장 높게 파악 되었다. 대학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71명(46.7%), 숙명여자대학교 8명(5.3%), 인천대학교 20명(13.2%), 국민대학교 8명(5.3%), 인하대학교 26명(17.1%), 기타 경희대 및 단국대 외 19명(12.5%)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비중이 높았다.

전공은 인문계열 12명(7.9%), 사회계열 25명(16.4%), 이공계열 110명(72.4%), 기타 5명(3.3%)으로 이공계열의 비중이 가장 높게 파악 되었다. 전공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6명(3.9%), 만족하지 않는다. 6명(3.9%), 보통이다. 54명(35.5%), 만족 한다. 61명(40.1%), 매우 만족 한다. 25명(16.4%)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과 전공의 연관성은 매우 높다. 37명(24.3%), 관련이 있다. 42명(27.6%), 보통이다. 36(23.7%), 관련이 적다. 21명(13.8%), 상관없다. 16명(10.5%)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 전공에 만족하고 창업이 관련이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창업 상황은 현재 창업 준비 중 138명(90.8%), 창업 1년차 11명(7.2%), 창업 4~5년차 1명(0.7%), 창업 6년차 이상 2명(1.3%)인 것으로 창업 준비 중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명(2.6%), 만족하지 않는다. 20명(13.2%), 보통이다. 95명(62.5%), 만족 한다. 27명(17.8%), 매우 만족 한다. 6명(3.9%)인 것으로 나타나 보통이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표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표본수(명)	비율(%)	특성	구분	표본수(명)	비율(%)
성별	남자	99	65.1	창업과 전공 연관성	매우 높다	37	24.3
	여자	53	34.9		관련이 있다	42	27.6
연령	20~25세	108	71.1		보통이다	36	23.7
	25~30세	32	21.1		관련이 적다	21	3.8
	30~35세	5	3.3		상관 없다	16	10.5
	35세 이상	7	4.6	창업 상황	창업 준비중	138	90.8
학년	1학년	35	23		창업 1년차	11	7.2
	2학년	32	21.1		창업 2~3년차	1	0.7
	3학년	23	15.1		창업 4~5년차	0	0
	4학년	62	40.8		창업 6년차 이상	2	1.3
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71	46.7		취업준비 중	0	0
	숙명여자대학교	8	5.3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	2.6
	인천대학교	20	13.2		만족하지 않는다	20	13.2
	국민대학교	8	5.3		보통이다	95	62.5
	인하대학교	26	17.1	만족도	만족 한다	27	17.8
	기타	19	12.5		매우 만족 한다	6	3.9
전공	인문계열	12	7.9				
	사회계열	25	16.4				
	이공계열	110	72.4				
	기타	5	3.3				
전공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6	3.9				
	만족하지 않는다	6	3.9				
	보통이다	54	35.5				
	만족 한다	61	40.1				
	매우 만족 한다	25	16.4				

조사대상자들의 창업교육 지원 및 창업활동 지원,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수강 및 참여여부를 <표 4>에 제시 하였다.

<표 4> 창업지원프로그램 수강 및 참여 현황

수강 또는 경험 횟수	창업교육 지원			창업활동 지원				사업화 지원				
	과목수강	특강참여	세미나 포럼	창업동아리	전시회	시제품	멘토링	지식재산권	기술개발	보육공간	홍보지원	자금지원
0회	78	53	52	98	103	108	88	121	128	114	136	111
1회	32	46	53	39	21	24	23	17	17	28	12	21
2회~3회	33	35	30	8	15	17	21	10	6	9	3	14
4회~5회	4	6	5	2	5	0	0	2	0	0	0	3
6회 이상	5	12	12	5	8	3	20	2	1	1	1	3
합계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52

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필요한 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개발·실시한 설문의 신뢰성 검정 및 측정된 구성개념들의 타당도를 검정한다.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제대로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개념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여러 변수들 간의 공분산과 상관관계 등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 그 결과를 통대로 문항과 변수들 간의 상관성 및 구조를 파악하여 여러 변수들이 지닌 정보를 적은 수의 요인으로 묶어서 나타내는 분석이다(노경섭, 2014).

본 연구에서는 개념타당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의 방법은 주성분분석으로 진행하였고, 요인의 회전은 배리맥스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결정은 아이겐 값 1.0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요인적재치가 0.4이하이거나, 타 요인으로 분류 된 경우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를 이용하여 내적일관성을 분석 하였다.

4.2.1. 타당성 검증

4.2.1.1. 창업지원프로그램

<표 5>는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로 창업활동 지원, 창업교육 지원, 사업화 지원으로 요인이 구분 되

었다. 이 중 창업활동 지원 1과 7, 창업교육 지원 4는 구조에 맞지 않아 제거 하였으며, 요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KMO값을 확인한다. KMO값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본 연구의 KMO는 0.937이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구분	요인		
	1	2	3
활동4	**0.845**	0.223	0.327
활동5	**0.835**	0.304	0.317
활동6	**0.755**	0.415	0.311
활동2	**0.639**	0.466	0.388
활동3	**0.601**	0.523	0.35
교육5	0.144	**0.794**	0.378
교육2	0.369	**0.783**	0.274
교육1	0.472	**0.736**	0.184
교육3	0.393	**0.708**	0.324
사업화4	0.287	0.277	**0.834**
사업화3	0.397	0.151	**0.783**
사업화1	0.251	0.41	**0.761**
사업화2	0.317	0.435	**0.742**
아이겐 값	3.687	3.549	3.374
공통변량(%)	28.36	27.298	25.957
누적변량(%)	28.36	55.658	81.615
KMO=.937 Bartlett's 카이제곱 1930.709 (p<.001)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 5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4.2.1.2.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

<표 6>은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로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 2개 요인으로 구분 되었다. 이 중 창업효능감 4는 구조에 맞지 않아 제거 하였다. 또한 기회인식 1과 3도 구조에 맞지 않아 제거 하였다. 본 연구의 KMO는 0.851이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구분	요인	
	1	2
효능감1	**0.896**	
효능감2	**0.855**	
효능감3	**0.820**	
기회5		**0.858**
기회2		**0.850**
기회4		**0.792**
아이겐 값	2.518	2.397
공통변량(%)	41.959	35.950
누적변량(%)	41.959	35.950
KMO=0.851 Bartlett's 카이제곱 602.557 (p<.001)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 4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4.2.1.3. 창업의지

<표 7>은 창업의지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로 이 중 창업의지 3은 구조에 맞지 않아 제거 하였다. 본 연구의 KMO는 0.545이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창업의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구분	요인
	1
의지1	**0.946**
의지2	**0.935**
의지4	**0.518**
아이겐 값	2.039
공통변량(%)	67.958
누적변량(%)	67.958
KMO=0.545 Bartlett's 카이제곱 238.293 (p<.001)	

4.2.2. 신뢰성 검증

<표 8>는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잠재변수들의 신뢰성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내적일관성 측정의 가장 일반적 방법은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를 이용한 신뢰도 측정이 사용 된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값이 0.6 이상이면 내적일관성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0.8이상이면 바람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는 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창업교육 지원, 창업활동 지원, 사업화 지원, 창업효능감, 기회인식, 창업의지 이다. 각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 된 관측변수(설문항목)들의 신뢰성 분석 결과 잠재변수인 창업의지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값이 0.745로 내적일관성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창업효능감, 기회인식에 대한 잠재변수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값이 각0.898. 0.867로 내적일관성 기준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나머지 잠재변수들인 창업교육 지원, 창업활동 지원, 사업화 지원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값이 모두 0.9를 상회하여 측정항목들의 내적일관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 한다.

<표 8> 잠재변수별 신뢰성 분석 결과

잠재변수	관측변수	크론바흐 알파
창업교육 지원	교육1	0.906
	교육2	
	교육3	
	교육5	
창업활동 지원	활동2	0.942
	활동3	
	활동4	
	활동5	
	활동6	
사업화 지원	사업화1	0.922
	사업화2	
	사업화3	
	사업화4	
창업 효능감	효능감1	0.898
	효능감2	
	효능감3	
기회 인식	기회2	0.867
	기회4	
	기회5	
창업 의지	의지2	0.745
	의지3	
	의지5	

4.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가 입주기업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서울시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 사업에만 국한하여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일반화하는데 상관관계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서로의 관계가 어떤 방향이고,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변수의 상관관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창업교육지원	창업활동지원	사업화지원	창업효능감	기회인식
창업교육지원	3.2352	.82902	1				
창업활동지원	3.1816	.87598	.798**	1			
사업화지원	3.1283	.86841	.722**	.756**	1		
창업효능감	3.0899	.75757	.279**	.386**	.423**	1	
기회인식	3.3947	.74528	.464**	.548**	.383**	.634**	1
창업의지	2.9583	.97074	.083	.237**	.114	.351**	.588**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9>과 같이 측정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부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 된다. 창업활동 지원과 창업교육 지원이 .798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화 지원과 창업활동 지원이 .756순으로 상관관계를 갖는다.

4.4 가설 검증

4.4.1. 가설 1의 검증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효능감과의 관계 분석에서는 대학생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H1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 하였다. H1에 대한 세부 가설은 아래와 같다.

H1: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창업교육지원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창업활동지원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사업화지원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0>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창업효능감	(상수)	1.945	.234		8.314	.000		
	창업교육지원	-.180	.117	-.197	-1.543	.125	.330	3.027
	창업활동지원	.234	.117	.270	2.001	.047	.295	3.385
	사업화지원	.315	.103	.361	3.065	.003	.390	2.567
R Square=.202, 수정된 R Square=.186, *F=12.469, P=.000*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창업효능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각각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인 창업교육 지원, 창업활동 지원, 사업화 지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지 및 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4>와 같이 나타났다. *F*값이 12.469이고, *P*값이 .000으로 본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차한계가 0.1이상, VIF값이 10.0이하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활동 지원, 사업화 지원이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타값을 보면 사업화 지원이 창업활동 지원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교육 지원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543, *P*값이 .125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활동 지원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2.001, *P*값이 .047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사업화 지원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4.065, *P*값이 .003으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2. 가설 2의 검증

창업지원프로그램과 기회인식과의 관계 분석에서는 대학생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H2 '창업지원프로그램은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 하였다. H2에 대한 세부 가설은 아래와 같다.

H2: 창업지원프로그램은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창업교육지원은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창업활동지원은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사업화지원은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1> 창업지원프로그램이 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기회인식	(상수)	1.896	.214		8.840	.000		
	창업교육지원	.096	.107	.107	.898	.371	.330	3.027
	창업활동지원	.460	.107	.540	4.289	.000	.295	3.385
	사업화지원	-.088	.094	.102	-.932	.353	.390	2.567
R Square=.307, 수정된 R Square=.292, *F=21.806, P=.000*								

창업지원프로그램이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기회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각각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인 창업교육 지원, 창업활동 지원, 사업화 지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창업지원프로그램이 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1>와 같이 나타났다. *F*값이 21.806이고, *P*값이 .000으로 본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차한계가 0.1이상, VIF값이 10.0이하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활동 지원이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교육 지원이 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898, *P*값이 .371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활동 지원이 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4.289, *P*값이 .000으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사업화 지원이 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932, *P*값이 .353으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4.3. 가설 3의 검증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분석에서는 대학생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H3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 하였다. H3에 대한 세부 가설은 아래와 같다.

H3: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2>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창업의지	(상수)	1.568	.312		5.030	.000		
	창업효능감	.450	.098	.351	4.596	.000	1.000	1.000
R Square=.123, 수정된 R Square=.118, *F=21.123, P=.000*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창업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2>과 같이 나타났다.

*F*값이 21.123이고, *P*값이 .000으로 본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차한계가 0.1이상, VIF값이 10.0이하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4.596, *P*값이 .000으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4. 가설 4의 검증

기회인식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분석에서는 대학생 기회인식은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H4 '기회인식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 하였다. H4에 대한 세부 가설은 아래와 같다.

H4: 기회인식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3> 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창업의지	(상수)	.357	.299		1.194	.235		
	기회인식	.766	.086	.598	8.912	.000	1.000	1.000
R Square=.346, 수정된 R Square=.342, *F=79.428, P=.000*								

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기회인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F*값이 79.428이고, *P*값이 .000으로 본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차한계가 0.1이상, VIF값이 10.0이하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8.912, *P*값이 .000으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5. 가설 5의 검증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분석에서는 대학생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H5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 하였다. H5에 대한 세부 가설은 아래와 같다.

H5: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4>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창업의지	(상수)	2.448	.320		7.646	.000		
	창업교육지원	-.313	.160	-.267	-1.957	.052	.330	3.027
	창업활동지원	.563	.160	.508	3.523	.001	.295	3.385
	사업화지원	-.086	.140	-.077	-.615	.540	.390	2.567
R Square=.089, 수정된 R Square=.071, *F=4.847, P=.003*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창업지원프로그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4>과 같이 나타났다.

*F*값이 4.847이고, *P*값이 .003으로 본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차한계가 0.1이상, VIF값이 10.0

이하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활동 지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활동 지원의 t값이 3.521, P값이 .001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창업교육 지원은 t값이 -1.957, P값이 .052로 사업화 지원은 t값이-0.615, P값이 .540으로 나타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창업교육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질을 향상해야 하고, 좀 더 확실한 재정적 지원과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설명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4.6. 가설 6의 검증

가설 6과 가설 7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3단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단계 독립변수가 종속(매개변인)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다음 2단계에서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며, 마지막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투입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의 β값이 2단계 독립변수의 β값 보다 작아야 하며,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이때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질 경우 독립변수는 직접효과를 갖고 매개변인은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며, 독립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갖지 않을 경우 직접효과는 없으며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Baron & Kenny, 1986).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H6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 하였다. H6에 대한 세부 가설은 아래와 같다.

H6: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6-1: 창업교육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6-2: 창업활동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6-3: 사업화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표 15>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베타	t	p	R^2	F
1	창업교육 지원	창업 효능감	.279	.3557	.001	.078	12.655
2	창업교육 지원	창업 의지	.083	1.019	.31	.007	1.038
3	창업교육 지원	창업 의지	-.016	-.205	.838	.112	10.515
	창업 효능감		.356	4.457	.000		
1	창업활동 지원	창업 효능감	.386	5.120	.000	.149	26.218
2	창업활동 지원	창업 의지	.237	2.986	.003	.056	8.918
3	창업활동 지원	창업 의지	.119	1.442	.151	.136	11.678
	창업 효능감		.305	3.699	.000		
1	사업화 지원	창업 효능감	.423	5.713	.000	.179	32.643
2	사업화 지원	창업 의지	.114	1.410	.160	.013	1.989
3	사업화 지원	창업 의지	-.042	-.491	.624	.125	10.629
	창업 효능감		.369	4.362	.000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5>와 같이 나타났다.

창업교육 지원은 1단계에서 β_1 =0.279(P=0.001)으로 유의하며, 2단계에서 β_2 =.0.083(p=0.31)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매개조건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H6-2. 창업활동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창업활동 지원은 1단계에서 β_1 =0.386(P=0.000)으로 유의하며, 2단계에서 β_2 =0.237(p=0.003)로 유의하게 나타나 매개조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매개변수를 추가 투입한 3단계에서 매개변수 창업효능감은 β_4 =0.305(P=0.000)으로 유의하며 독립변수 창업활동지원은 β_3 =0.119(p=0.151)로 2단계 보다 낮은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 매개조건 3단계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창업효능감은 창업지원프로그램의 창업활동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사업화 지원에서는 1단계에서 β_1 =0.423(P=0.000)으로 유의하며, 2단계에서 β_2 =.0.114(p=0.160)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매개조건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창업효능감은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교육 지원과 사업화 지원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창업활동 지원은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창업효능감으로 인해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창업활동 지원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창업효능감이 좋아지고 이로 인해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 된다.

4.4.7. 가설 7의 검증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H7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 하였다. H7에 대한 세부 가설은 아래와 같다.

H7: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7-1: 창업교육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7-2: 창업활동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7-3: 사업화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표 16> 기회인식의 매개효과 분석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베타	*t*	*p*	R^2	*F*
1	창업교육 지원	기회인식	.464	.6418	.000	.215	41.193
2	창업교육 지원	창업의지	.114	1.410	.160	.007	1.989
3	창업교육 지원	창업의지	-.042	-.491	.624	.392	10.629
	기회인식		.369	4.362	.000		
1	창업활동 지원	기회인식	.548	8.072	.000	.300	64.436
2	창업활동 지원	창업의지	.083	1.019	.301	.056	1.038
3	창업활동 지원	창업의지	-.242	-3.363	.001	.357	48.098
	기회인식		.071	9.722	.000		
1	사업화 지원	기회인식	.383	11.260	.000	.147	28.850
2	사업화 지원	창업의지	.237	2.986	.003	.013	8.918
3	사업화 지원	창업의지	-.122	-.1559	.121	.361	41.307
	기회인식		.656	8.344	.000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6>과 같이 나타났다.

창업교육 지원은 1단계에서 β_1 =0.464(*P*=0.000)로 유의하며, 2단계에서 β_2 =.0.114(*p*=0.160)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매개조건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창업활동 지원은 1단계에서 β_1 =0.548(*P*=0.000)로 유의하며, 2단계에서 β_2 =0.83(*p*=0.301)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매개조건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사업화 지원은 1단계에서 β_1 =0.383(*P*=0.000)으로 유의하며, 2단계에서 β_2 =.0.237(*p*=0.003)로 유의하게 나타나 매개조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매개변수를 추가 투입한 3단계에서 매개변수 기회인식은 β_4 =0.656(*P*=0.000)으로 유의하며 독립변수 사업화 지원은 β_3 =-1.22(*p*=0.121)로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인식은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교육 지원과 창업활동 지원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사업화 지원은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기회인식으로 인해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4.8. 가설검증 결과 요약

다음의 <표 17>은 앞서 분석한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가설 1과 가설 2는 부분 채택 되었다. 이에 가설 1-1과 가설 2-1이 기각 되었고, 나머지 가설들은 모두 채택 되었다. 가설 3과 4는 채택되었으며 가설 5는 부분적으로 채택 되었고, 가설 6과 가설 7은 가설 6-2와 가설 7-3만 채택 되어 부분 채택 되었다.

<표 21> 연구가설의 요약

연구가설		결과
H1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1-1	창업교육 지원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2	창업활동 지원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3	사업화 지원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	**창업지원프로그램은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2-1	창업교육 지원은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2	창업활동 지원은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3	사업화 지원은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	**기회인식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활동 지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채택**
H6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매개**
6-1	창업교육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6-2	창업활동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매개
6-3	사업화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H7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매개**
7-1	창업교육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7-2	창업교육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7-3	**창업교육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매개**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의 창업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음에 따라 창업교육 및 창업활동 지원, 사업화 지원 등의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학에서도 창업지원관련 센터 설립 및 각종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방향 및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학의 노력과 상통하여 대학생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지와 기회인식 그리고 창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약 15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2부를 제외하여 152부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된 연구

가설들을 검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 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창업지원프로그램의 하위변수인 창업교육 지원, 창업활동 지원, 사업화 지원 중 창업활동 지원은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사업화 지원은 창업효능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교육 지원은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교육 지원 자체가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으로 이어지는 내용 보다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지원 체계보다는 창업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직접접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 일 수 도 있다. 하지만 대학의 창업교육 지원 체계가 단발적인 특강 또는 일회성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 되는 경우가 많아 그 효율성에 대해 문제점이 들어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된다.

창업활동 지원과 사업화 지원이 창업의지와 창업활동 지원이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로 판단되며, 사업화 지원이 창업의지를 통해 기회인식을 늘릴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창업지원프로그램 경험 후에 인식 된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이 창업 가능성이 있는 학생 즉,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방안 마련과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기회를 발견하고 인식 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창업지원프로그램의 하위변수 중 창업활동 지원만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 지원과 사업화 지원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와도 연관성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대학의 창업교육이 현재는 기업가 정신을 이해시키는 내용에 대한 구성이 대부분 이고, 단발적인 특강 또는 일회성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대학은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창업교육 지원에 대해 기업가정신의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 창업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창업 교과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화 지원을 위한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확실한 재정적 지원과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늘려야 하며,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창업 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 할 것이다.

넷째,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창업효능감은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활동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회인식은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사업화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교육 지원, 사업화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은 매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교육 지원, 창업활동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은 매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일부는 직접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창업효능감이나 기회인식으로 인해 창업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파악 된다. 즉,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대학생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효능감, 기회인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고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것을 토대로 통계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 하였다.

하지만 검증 된 연구결과 및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대학별로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원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확보된 데이터를 통해 일관성 있는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추후에는 대학별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수도권 소재 몇 개의 대학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어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다양한 지역의 충분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제공하는 문항을 그대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문항이 조작적 정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추후에는 새로운 문항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척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후속연구에서는 매개효과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창업교육지원의 유의적이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답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REFERENCE

강재학·양동우(2016).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회인식인식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1), 493-507.

곽동신(2016). *대학의 창업교육 서비스품질이 교육만족과 창업역량,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밭대학교.

김규태(2016). *기술사업화 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공연구기관의 기초·원천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김은정(2014). *종자개발 R·D 기술사업화생태계 활성화 연구,* KISTEP 연구보고서, 2014.

김해룡(2008). 소상공 예비창업자의 성격과 리더십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격 5요인이론과 셀프리더십이론의 탐색적 적용, *대한경영학회,* 21(6), 2393-2420.

김현목(2013). *1인 창조기업가 정신이 기회인식 인식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SNS 활용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노경섭(2014).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AMOS 21,* 서울; 한빛아카데미.

노두환·정영근·박호영(2016).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애로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벤처창업연구,* 11(1), 1-12.

문수영·황보윤(2011). 청년창업가의 기회인식원천 분석 및 기회탐색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6(4), 39-57.

박우철(2010).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진주산업대학교.

박은주(2012). *대학생들의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창업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간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안승권(2016). *창업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윤현덕(2003). 패션·유통산업이 창업활성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6(3), 117-144.

이재석·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 효과, *벤처창업연구,* 10(3), 61-74.

장수경(2013). *대학의 창업지원서비스가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회인식과 자기효능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상명대학교.

장수덕·이재훈(2014). 대학생 창업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 대학생 중심의 인지적 모델과 대학지원의 통합적 접근, *벤처창업연구,* 9(4), 65-76.

장혜선(2014). *성 스키마(gender schema)가 창업효능감, 성취동기,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최명길·박은주(2012). 청년층의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문화·관광 창업 교육을 수강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관광레저학회,* 24(5), 201-220.

최민정(2016). *소상공인 창업교육이 기회인식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과 조절초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6(188).

홍효석(2011). 창업자 특성과 사업기회 발견,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4), 731-744.

An, S. K,(2016).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 of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s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63.

Autio, E., Keeley, R. H., Klofsten, M., & Ulfstedt, T.(1997).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students: Testing an intent model in Asia*, Scandinavia and USA. In: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7, Babson College/Kauffman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Wellesley: Babson College. Available at http://www.babson.edu/entrep/fer/papers97/autio/aut1.htm.

Bae, T. J., Qian, S., Miao, C., & Fiet, J. O.(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Meta-Analytic Review.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8(2), 217-254.

Bagozzi, R. P., Baumgartner, J., & Yi, Y.(1989). An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intentions as mediators of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0(1), 35-62.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Chen, C. C., Greene, P. G.,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Choi, M. G., & Park, E. J.(2012). A Study onThe Effects of Youth Entrepreneurship Education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Undergraduate Students in Culture·Tourism Entrepreneurship,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24(5), 201-220.

Choi, M. J.(2016).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opportunity recognition and evaluation :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regulatory focus, Major in Entrepreneurship Consulting 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National University.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Davidsson, P.(1995).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Paper presented at the Paper prepared for the RENT IX Workshop, Piacenza, Italy, Nov, 23-24.

DiGregorio, D., & Shane, S.(2003). Why Some Universities Generate More Start-ups than Others, *Research Policy*, 32(2), 209-227.

Galloway & Brown.(2002). Galloway, L., and Brown, W. (2002)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university: A driver in the creation of high growth firms?. *Education + Training*, 44(8/9), 398-405.

Garavan T. N., & O'Cinneide, B.(1994).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 review and evaluation-Part 1.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8(8), 3-12.

Gibb, A.(2002). In pursuit of a new ‘enterprise’ and ‘entrepreneurship’ paradigm for learning: creative destruction, new values, new ways of doing things and new combinations of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4(3), 233-269.

Hisrich, R., Peters, M., & Shepherd, D.(2013). *Entrepreneurship, ninth edition,* NY: McGraw Hill.

Hong, H. S.(2011). Founder characteristics and business opportunity discovery, *Korea Intemational Accounting Association*, 2011(4), 731-744.

Jang, S. D., & Lee, J. H.(2014). Empirical Study of Students' Start-Up Activities: Integrated Approach of Student-Focused Cognitive Model and Supportive Activities of Universit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4), 65-76.

Jang, S. K.(2013). *A Study about the Effects of University's Business Support Service on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awareness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and self-efficacy for new market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Venture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Sangmyung University.

Jolly, V.K.(1997). Commercializing New Technologies,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Jung, H. S.(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gender schema on entrepreneurial 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n entrepreneurial intention, Dept.* Entrepreneurial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g National University.

Kang, J. H., & Yang, D. W.(2016). A Study on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 493-507.

KEDI(2014). *edzin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6(188).

Kierulff, H. E.(2005).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Poland: Findings from the field.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in Manufacturing & Service Industries,* 15(1), 93-98.

Kim, E. J.(2014). Seed development R & 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cosystem activation research, *KISTEP Research Report*

Kim, H. M.(2013). *Study of influencing effects of one-person entrepreneur’sentrepreneurship to the recognition of business establishment opportunity and business establishment will: study about regulating effects of SNS utilization,* Department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Kim, H. R.(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Self Leadership of Potential Founders in the Micro Business Area on Founder Self-efficacy: Applying the Big Five Factors Model and the Self-Leadership Theory,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1(6). 2393-2420

Kim, K. T.(2016). *(The) study on effect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in the company's performance: focusing on the company utilizing the basic research and source technology of public research institution including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Kirzner, I. M.(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2014), *Educational Development,* KEID, 6(188).

Kraaijenbrink, J., Groen, A., & Bos, G.(2010.) What do students think of the entrepreneurial support given by their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9(1), 110-125.

Krueger, N.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91.

Krueger, N. F.(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18(1), 5-21.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Kwak, D. S.(2016). *The Effect of University Entrepreneurial EducationService Quality on Education Satisfaction, Entrepreneurial Cap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Department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Hanbat National University.

Lee, J. S., & Lee, S. M.(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61-74.

Man, T. W., Lau, T., & Chan, K. F.(2002).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 conceptualization with focus on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7(2), 123-142.

Martin, B. C., McNally, J. J., & Kay, M. J.(2013). Examining the formation of human capital in entrepreneurship: A meta-analysi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utcom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2), 211-224.

McGee, J. E., Peterson, M., Mueller, S. L. & Sequeira, J. M.(200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4), 965-988.

McGrath, R. G.(1999). Falling Forward: Real Options Reasoning and Entrepreneurial Fail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1), 13-30.

Mentoor, E., & Friedrich, C.(2007). Is entrepreneurial education at South African universities successful? An empirical example.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21(3), 231-232.

Michaelides, M., & Benus, J.(2012). Are self-employment training programs effective? Evidence from Project

GATE. *Labour Economics,* 19(5), 695-705.

Mitchell, W. & Singh, K.(1996). Survival of Business Using Collaborative Relationships to Commercialize Complex Good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3), 169-195.

Moon, S. Y., & Hwangbo, Y.(2011). An Empirical Study on Start-up Opportunity Sources Analysis and Opportunity Search of Korean Young Entrepreneurs: Focused on a participants of Seoul Young Entrepreneurs 1000 Project, *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6(4), 39-57.

Morris, M. H., Webb, J. W., Fu, J., & Singhal, S.(2013).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352-369.

Noe, K. S.(2015). *Easy & Practical Statistical Analysis for Dissertation*, Hanvit Academy, Seoul, Korea.

Park, E. J.(2010).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university student : the comparison study between the group depending on participation enterpreneurship education*, Major in Entrepreneurship Consulting 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National University.

Park, W. C.(2010). *AnEmpirical Study on FactorsA 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Career Orientation,* 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of Venture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Jinju National University.

Peterman, N. E., & Kennedy, J.(2003). Enterprise Education: Influencing Students' Perceptions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8(2), 129-144.

Roberts, E. B.(1991) *Entrepreneurs in High Technology: Lessons from Mit and Beyo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oh, D. H., Jeong, Y. K. & Park, H. Y.(2016). An Analysis on the Relative Importance Evaluation of SMEs·Ventur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blems Using AH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1), 1-12.

Ronstadt, R.(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0(1), 7-23.

Sequeira, J., Mueller, S. L., & McGee, J. E.(2007). The Influence of Social Ties and Self-Efficacy in Form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Motivating Nascent Behavior,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21(3), 275-293.

Shane, S.(2003). *A general theory of entrepreneurship: The individual-opportunity nexus (1ed.)*. Northhampton MA: Edward Elgar Publishing.

Shapero, A.(1975). The displaced, uncomfortable entrepreneur, *Psychology Today,* 9(6), 83-88.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A. Kent, D. L. Sexton, · K. H. Ves- per (Eds.),* Encyl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Soutaris, V., Zerbinati, S., & Al-Lahan, A.(2007). Do Entrepreneurship Programs Raise Entrepreneurial nten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The Effect of Learning, nspiration and Resour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4), 566-591.

Sung, C. S.(2011).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enior entrepreneurship,* Major in Entrepreneurship Consulting 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National University.

Thursby, J., & Kemp, S.(2002). Growth and Productive Efficiency of University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Research Policy,* 31(1), 109-124.

Timmons.(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Hoomwood, IL:Irwin.

Vesper, K. H.(1990). *New Venture Strategies,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127-158.

Yoon, B. S.(200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Business Review,* 17(2), 89-106.

Yoon, H. D.(2003). A Study on the Factors of the Prevalence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Fashion·Distribution Industry,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6(3), 117-144.

Zhao, H., Seibert, S. E., & Hills, G. E.(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

Impact of Startup Support Program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pportunity Recognition·Startup Inten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Lee, Jung Ran*
Chang, Gyoo S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form the university stakeholder and startup policy makers about the current status of startup support programs and to identify criteria that could impact the startup effectively among various support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startup support programs into three different types. These types are startup education support, startup activity and commercialization support the startup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was analyzed using survey and interview during the these programs. In addition, the impact on startup intention was empirical analyzed utilizing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opportunity recognition support programs.

Research results show that, Firstly, startup activity support program had impacted on both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opportunity recognition. Commercialization support had impacte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However, startup education support program had no impact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opportunity recognition. secondly,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opportunity Recognition have influence on startup intention. Thirdly, startup activity support had influenced on startup intention. Finally, startup activity support and startup intention strongly influence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lso, commercialization and startup intention strongly influenced opportunity recognition. Other factors only influenced partially.

Startup support program shall seek various solutions to improve quality to increase startup inten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lso, high quality educational program shall be offered to improv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opportunity recognition, while promoting startup activity and commercialization support emphasized. Try to realize a strategic development for activation of startup business.

Keyword: Startup Support Program,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pportunity Recognition, Startup Intention

* Director, Kickstart Investment, topljr@naver.com
** Associate Professor, Dongseoul University, gschang2182@hanmail.net